

화훼 병해충 도감 ⑨

야생화



한경숙 연구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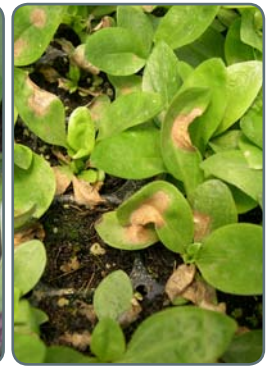
■ 굴파리류

잎과 꽃을 갉아 먹는다. 나방류 유충이 가해하면 잎에 식흔이 남으며 꽃봉오리 속으로 뚫고 들어가 가해하기도 한다. 도둑나방 유충이 가해하면 잎의 껍질만 남기고 갉아 먹으며 피해 부위에는 흰 반점이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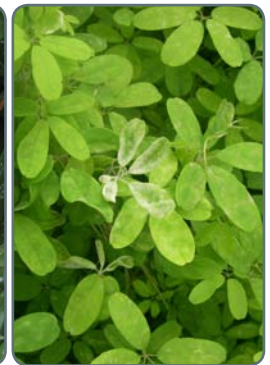
■ 점무늬병

잎, 줄기에 발생하며 하엽부터 시작된다. 잎에서 처음에는 불규칙한 작은 갈색의 반점을 형성하나 차츰 부정형의 커다란 병반으로 된다. 발병이 심해지면 병반부위부터 황화되고 결국 잎은 고사한다. 줄기에는 방추형의 반점이 형성된다.



■ 흰가루병

잎에 발생하며, 처음에는 잎에 드문드문 흰가루가 나타나고 병반이 진전되면 흰가루를 뿌린 듯이 잎 전체가 하얗게 되며, 병든 잎은 비틀어지고 마른다. 시설재배에서는 여름 고온기를 제외하고 거의 연중 발생하나, 비가림 재배 하우스에서 여름철에도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발병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털머위와 매발톱, 으아리에서 발생하여 피해를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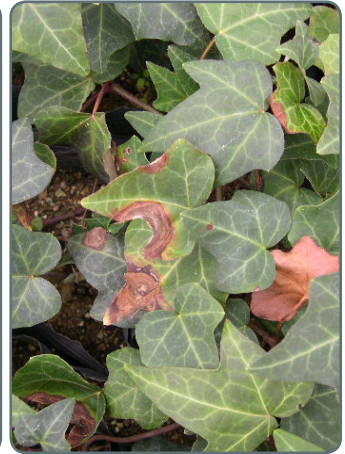
■ 잿빛곰팡이병

주로 저온다습한 조건하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파종상의 배수불량과 밀식으로 인해 통풍이 나빠지면서 발병은 더욱 심해져 일부 파종상에서는 잿빛곰팡이병으로 인한 70-80%까지 유묘가 고사되는 피해가 조사되었다. 밀식재배나 과비로 잎이 지나치게 무성하지 않도록 한다.



■ 탄저병

고온다습한 조건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여름철 하우스에서 물을 많이 주었을 경우 발생해서 피해를 준다. 잎이나 줄기가 여린 식물체에서 탄저병에 감염될 경우 아예 물러서 버리는 피해까지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응애류

주로 잎에서 많이 나타나며 피해엽에는 황색 또는 흰색의 반점이 생긴다. 응애의 밀도가 높아져 심하게 피해를 입으면 잎이 갈변하고 조기낙엽 증상이 나타난다. 점박이응애는 주로 잎 뒷면에서 가해하는데 밀도가 높으면 잎의 앞뒷면에 거미줄을 만들고 잎 표면에는 응애의 탈피각이 붙어 지저분해진다. ㉞

